초대형 계약 소뱅 이대호의 성공 과제

야후돔 징크스를 깨라!

'대한민국 4번타자' 이대호가 소프트뱅크와 3년간 최대 20억5000만엔(약 209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이대호는 올 시즌 소프트뱅크의 홈구장 야후돔에서 44타수 10안타(타율 0.227) 2홈런 7타점에 그쳤다. '야후돔 징크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과제다. 스포츠동아DB

펜스 높이 5.84m…일본서 가장 높아
올 타율 0.303 불구 야후돔선 0.227

"사직구장보다 더 답답하지만…"
야후돔 전광판 때린 20호 어게인 각오

전 소속팀 오릭스와 새 둥지 소프트뱅크는 같은 퍼시픽리그 소속이라 지난 2년간의 경험은 이대호(31)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낯선 투수들에게 적응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숙제가 있다. 바로 새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후쿠오카 야후돔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이다.

'대한민국 4번타자' 이대호는 소프트뱅크와 3년간 최대 20억5000만엔(약 209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재일동포 손정의 소프크뱅크 회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오 사다하루(왕정치) 전 감독이 구단회장을 맡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이대호에게 '우승청부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 일본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리그 3위를 차지해 클라이맥스시리즈에 올랐지만 곧 좌절을 맛봤고, 올해는 4위로 밀려 아예 포스트시즌 진출에도 실패했다. 20홈런 이상을 친 타자가 마쓰다 노부히로 한 명밖에 없었을 정도로 중심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했다. 2년 연속 24홈런을 날린 이대호가 그 갈증을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 이대호가 소프트뱅크를 선택한 것 역시 '우승 가능 전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소프트뱅크의 홈구장 야후돔은 외야 좌우 펜스까지 거리가 100m, 중앙 펜스까지 거리가 122m로 크기 면에선 일본 내 다른 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펜스 높이. 무려 5.84m에 달해 일본프로야구 구장 중 가장 높다.

이대호는 올해 8월 21일과 22일 야후돔에서 이틀 연속 아치를 뿜으며 시즌 19·20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야후돔에선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올 시즌 야후돔에서 열린 11게임에서 44타수 10안타(타율 0.227) 2홈런 7타점에 그쳤다. 2013년 이대호는 시즌 타율 0.303에 24홈런 91타점을 기록했다. 타율 하나만 놓고 봐도 야후돔에선 소득보다는 손실이 많았다.

이대호는 "사직구장도 펜스가 높아 타자로선 답답한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야후돔은 더 한 느낌이다"고 밝힌 바 있다. 긍정적인 것은 원정으로 가서 뛰는 느낌과 홈구장으로서 밟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대호의 올 시즌 20호 홈런은 야후돔 전광판을 때리는 비거리 125m의 대형아치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스토브리그 큰손 롯데, 얼마나 썼나?

FA 3인에게 127억+α

모기업 200억 지원…윤석민 국내 복귀도 대비

롯데는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2년 연속 4번타자를 잃었다. 2011시즌을 마친 뒤 이대호(현 소프트뱅크)가 오릭스로, 2012시즌 직후에는 홍성흔이 두산으로 떠났다. 그러나 2013년 스토브리그에선 역으로 4번타자를 둘이나 데려왔다. 두산에서 FA 최준석을 영입했고, 외국인타자 루이스 히메네스까지 입단시켰다.

과거 '거품은 안 산다'에서 벗어나 '거품도 가격이다'로 구단 정책이 변화한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KIA에 김주찬(4년 총액 50억원), 두산에 홍성흔(4년 총액 31억원)을 내줬을 때, 롯데 구단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책정한 합리적 가격보다 훨씬 비싼데 어떻게 잡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2013시즌 흥행과 성적에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자, 롯데는 '합리적 투자'에서 '공격적 베팅'으로 급선회했다. FA 포수 강민호와 4년 총액 75억원(발표액 기준)에 계약해 프로야구 사상 최고액을 안겼다. 여기에다 왼손 불펜투수 강영식과도 4년 총액 17억원에 계약해 자체 FA를 모두 주저앉혔다. 이어 최준석을 4년 총액 35억원에 데려왔다. 이 금액만 합쳐도 127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FA 계약 때 발표하지 않은 '플러스 알파(α)' 금액, 최준석의 원소속구단 두산에 지급한 보상금(2억9000만원)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불어난다.

아울러 롯데는 두 외국인투수 유먼, 옥스프링과 재계약에 성공한 데 이어 왼손 거포 히메네스를 데려왔다. 롯데가 공식 발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웃돈을 건네줬으리란 것은 비밀도 아니다. 롯데는 이에 그치지 않고 FA 투수 윤석민(전 KIA)의 국내 복귀에도 대비하고 있다. 모기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전력보강 비용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없이 쓰고 있는 롯데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손아섭

이대호와 통역 정창용씨의 '아름다운 동행'

"오릭스서 큰 도움…어디든 함께 갈것"
새둥지 소프트뱅크서 또 한솥밥 결정

'아름다운 동행'이다. 지난 2년간 이대호(31)의 '일등 도우미' 역할을 했던 통역 정창용(35) 씨가 오릭스를 떠나 소프트뱅크에서 이대호와 또 한번 한솥밥을 먹는다.

"오릭스에서 2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뛸 수 있었던 데는 창용이 형의 도움이 컸다. 일본에 잔류한다면 물론이고 만약 메이저리그에 가더라도 창용이 형과 함께 갈 것"이라고 했던 이대호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정 씨는 24일 "얼마 전 오릭스와 나의 계약도 끝이 났다. 대호가 떠난 마당에 내가 오릭스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당연히 대호와 또 한번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메이저리그에 간다면 내가 홍보파트를 맡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그는 "나도 이제 오사카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 소프트뱅크의 홈인 후쿠오카와는 나도 별다른 인연이 없다. 하지만 일본 쪽에 잔류하게 된 이상, 내가 대호에게 그나마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구선수 출신으로 이승엽(삼성)이 요미우리에서 활약할 때 통역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던 정 씨는 2011년 말 이대호가 오릭스와 계약하면서 본격적인 동행을 시작했다. 마사지 자격증도 갖고 있어 이대호가 올 3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 태극마크를 달자 대표팀에 합류해 지근거리에서 돕기도 했다.

정 씨는 내년 1월 4일 사이판으로 개인훈련을 떠나는 이대호와 함께 출국해 훈련도 도울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오릭스에서 선수와 통역으로 호흡을 맞춘 이대호(오른쪽)와 정창용 씨가 소프트뱅크로 함께 움직인다. 두 사람이 2년 전 오릭스 입단 당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롯데 정훈은 '이대호의 남자'

"롯데시절 혼나도 다가갔더니 이젠 편한 형님"
비시즌땐 헬스클럽 제공 "고마워서 매일 가죠"

롯데 내야수 정훈(26)은 비활동기간인 12월 등산과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등산 후 헬스클럽에 가려면 사실 내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자신을 헬스클럽으로 불러준 사람을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훈은 소프트뱅크와 계약한 이대호(31)가 가장 아끼는 후배다. 이대호가 롯데에 몸담던 마지막 시즌(2011년)에는 룸메이트로 두기까지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가 지연도, 학연도 닿지 않은 신고선수 출신의 후배를 그토록 챙기는 이유는 뭘까.

사실 이대호는 롯데 시절부터 무섭고 어려운 선배로 통했다. 늘 개인성적보다 팀 승리를 우선시했고, 야구를 아무리 잘 해도 선배에게 깍듯하지 않은 후배라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대호에게 혼나지 않은 후배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정훈은 "이대호 선배가 무섭지 않다"고 말한다.

정훈은 "나라고 혼날 일이 없었겠나? 그러나 호통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대호 선배를 피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매달렸다. 그러다보니 편하게 생각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젠 편한 동네 형님 같다. 너무 많이 챙겨주신다"고 덧붙였다.

이대호가 비활동기간이면 부산의 한 헬스클럽으로 정훈을 부른 것도 어느덧 3년째다. 처음에는 정훈만 불러서 둘이 훈련했는데, 이제는 하나둘 늘어서 전준우와 문규현도 가세했다. 이대호의 지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라 모든 시설을 하루 4시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다.

매일 4시간이면 힘들 법도 하건만 고마움을 생각해 빠질 수 없었고, 그 덕분인지 정훈은 올 시즌 롯데의 주전 2루수로 올라섰다. 정훈은 "내년은 우리 팀 전력이 좋아졌으니 공격에서 성적을 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정훈

고과1위 손아섭의 고민 "연봉인상? 연락도 없다"

구단 상징성 고려 협상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
손아섭은 과거협상 서운함…"이번엔 믿는다"

롯데 손아섭(25)은 요즘 연봉 얘기만 나오면 곤혹스럽다. 정작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말잔치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손아섭은 24일 "구단과 아직 협상한 적도 없었고, 만날 약속도 못 잡았다"고 밝혔다. 롯데도 손아섭의 상징성을 고려해 협상 시점을 최대한 뒤로 두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협상 파트너가 아직 손을 내밀고 있지 않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가슴속에 원하는 액수는 있지만, 지금은 꺼낼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바깥에선 롯데의 연봉고과 1위인 손아섭의 인상폭을 궁금해한다. 그래서 추측이 나돌고 있으니, 그로선 더욱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팀 동료들에게 알아보기도 힘들다. 손아섭은 올 시즌 128경기에 출장해 타율 0.345, 11홈런, 69타점, 83득점, 36도루 등의 성적으로 팀 공격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72안타를 쳐서 2년 연속 최다안타 1위를 거머쥐었고, 외야수 골든글러브도 품에 안았다. 이런 압도적 성적으로 일군 고과 1위이기에 다른 선수들이 손아섭의 연봉협상을 주시해야 될 상황이지, 손아섭이 물어볼 상황은 아닌 것이다.

손아섭은 "지금은 그저 구단을 믿는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 말속에는 과거 6번의 연봉협상에서 한번도 시원하게 도장을 찍지 못했던 아쉬움을 롯데가 이번에는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